oh세화는 모던하고 깔끔하게 지은 신축 건물로, 실내 인테리어 역시 모던함과 심플함을 지향했습니다. 바다와 오름과 비자림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무엇보다도 가까운 곳에 에메랄드빛 바다가 인상적인 세화 해변이 위치하고 있어요. 오름을 다녀오거나 5일장도 즐길 수 있습니다. 푸른 섬 제주도에 대비되는 oh세화의 하얀 건물은 이국적인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제주의 햇살과 바닷바람, 이국적인 분위기의 oh세화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겨보세요.

"저희는 7년 전에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세화는 남편의 고향이예요. 캐나다 벤쿠버에서 14년을 살다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며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자연을 찾아 남편의 고향인 세화로 와서 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마당 있는 집에서 정원을 가꾸며 살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게스트 하우스를 하게 되었어요. oh세화를 꾸리며 정원에는 무화과와 샐러리 등을 직접 키우고 있답니다."

oh세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송로 8-11(다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887

숙소의 특별한 점

• 넓은 잔디밭에 펼쳐진 하얀 집

• 숙소 근처에 있는 푸르른 세화 해변

• 폴딩도어로 활짝 열리는 공용공간에서 바라보는 정원 뷰

• 넓은 잔디 정원에서 바라보는 붉은색으로 물든 노을

이런 여행객에게 추천

• 조용한 곳에서 사색하며 여행을 즐기고 싶은 분

• 커플 혹은 신혼부부, 부모님과의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

• 제주의 매력을 경험하고 싶은 외국인 관광객

알아두면 좋은 사항

• 아름다운 세화해변에서 도보로 10분이면 숙소에 도착해요.

• 매일 아침 조식으로 빵과 음료 등을 객실로 가져다드려요.